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 ☀

제목 : 캠핑 하느
김도윤

김도윤

캠핑을 하다 먼저 텐트를 쳤다. 근래고
타프를 쳤다. 그런 걸 다 하고 다 서야
놀수 있었다. 바에는 자작은 태워 구
미를 구워 먹었다. 너무너무 맛있었다.
캠핑장이 아름다운 곳을 캠핑장이었다.
두번 재가하는 거다. 너무너무 더웠다.
다음 주 금요일 날도 간다. 한 번 간
거가 다. 노을 캠핑장을 처음으로 갔
을 때는 오번 간 것보다 더~ 더웠
다. 오번에 간게 줄 나온 거였다.
노을캠핑장엔 놀수 있는 게 2가지
있었다. 한 개는 누에 보기
또 한 개는 나무벌레 놀이였다.
두 개 다 해 봤는 데 둘 다 재미
있었다. 누에는 애벌레 지르다 뽕이
를 먹고 산다. 거긴 산이였다.
며칠 동안 가는 멍멍이도 살았다.
다음에 도가고 싶다.